

金庾信墓의 異說에 對하여

金庾信墓

지금 慶州市 松花山에 있는 金庾信墓는 처음으로 現存에 이르기까지 歷代의 記錄이 昭昭하며 또 新羅以來의 巨族인 그의 子孫들과 (金海金氏) 國民이 지켜오는 가운데 千三百에 가까운 星霜을 겪은 가장 소중한 史蹟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이 墓에 對하여 恣意的으로 疑問을 일으키는 日帝侵略初期에 우리 文化財를 調査하던 日本人 關野貞氏이었다. 關野氏는 그의 政略的 意圖에 서인지 或은 皮相的인 觀點에서인지 우리 史蹟에 對하여 함부로 杜撰的 判斷을 내린 例가 적지 아니한바 金庾信墓에 關한 것이 그의 一例이다. 關野氏는 그의 朝鮮美術史에서 現存 金庾信墓를 金仁問墓로 金陽墓를 ① 金庾信墓로 擬定하여 우리를 啞然케 한 일들이 있었다. ② 그러나 關野氏 以外の 日人學者는 모두 이 金庾信墓에 의심을 품지 아니하였으니 今西龍氏는 그의 著 新羅史研究 『新羅舊都慶州의 地勢及其遺蹟遺物』篇에서

金庾信의 墓는 西岳里 松花山에 있다. 三國遺事에 『陵在西山毛只寺之北東向走峯』이라 있는 것이 곧 그것이다. (中略)位置 風光 모두 優秀하여 國家元勳의 墓로서 다시 없는 地點에 築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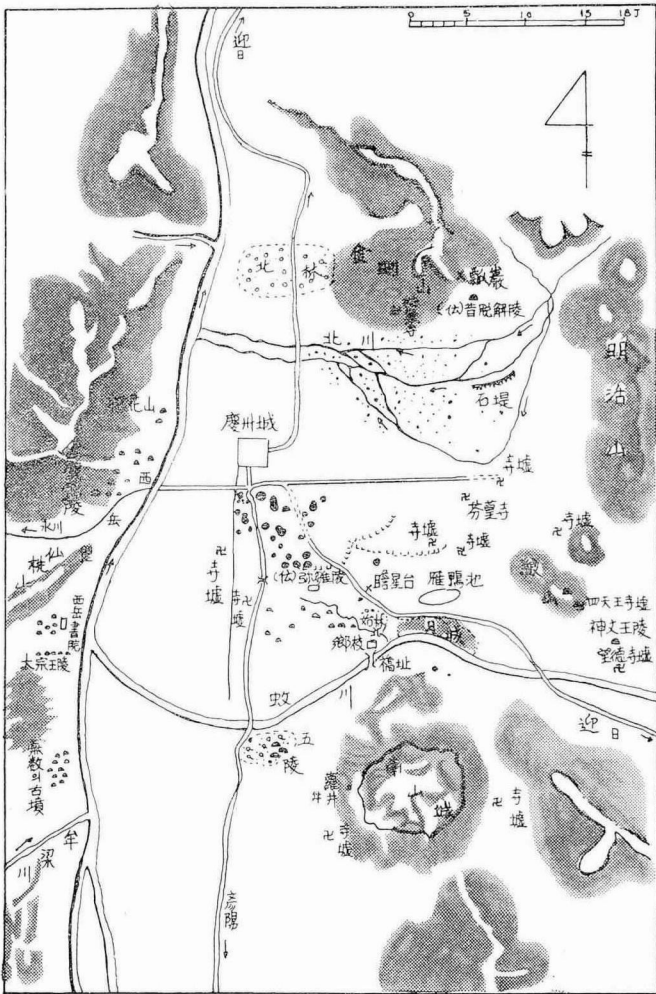


圖 1. 慶州近郊踏查假製圖(今西龍著 新羅史研究所收)

었다. (中略) 海東金石苑도 이를 收載하였다. ③ (中略) 朝鮮의 金海金氏는 그 系圖가 金庾信에 連繫됨으로 墓는 古來 朝鮮의 大姓인 金氏의 尊崇을 받았고 그 위에 新羅時代는 勿論 麗朝에 이르러서도 殊別한 尊敬을 받았기 때문에 失傳되지 않아 金庾信의 墓가 아닐지 모른다는 掛念은 없다. — 譯 —

라 하고 또 同書 『慶州に於ける 新羅の 墳墓及遺物に就て』에서도 이 墓가 金庾信의 墓임은 조금도 疑心할바 없다. — 譯 —

라고 거듭 強調하였는바 이는 前學 關野氏의 說에 對한 確固한 그의 學的 所信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④. 이와같이 金庾信墓에 對하여는 日人學者 가운데에도 關野氏의 妄說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最近에 이르러 某氏에 依하여 松花山의 金庾信墓가 否定되고 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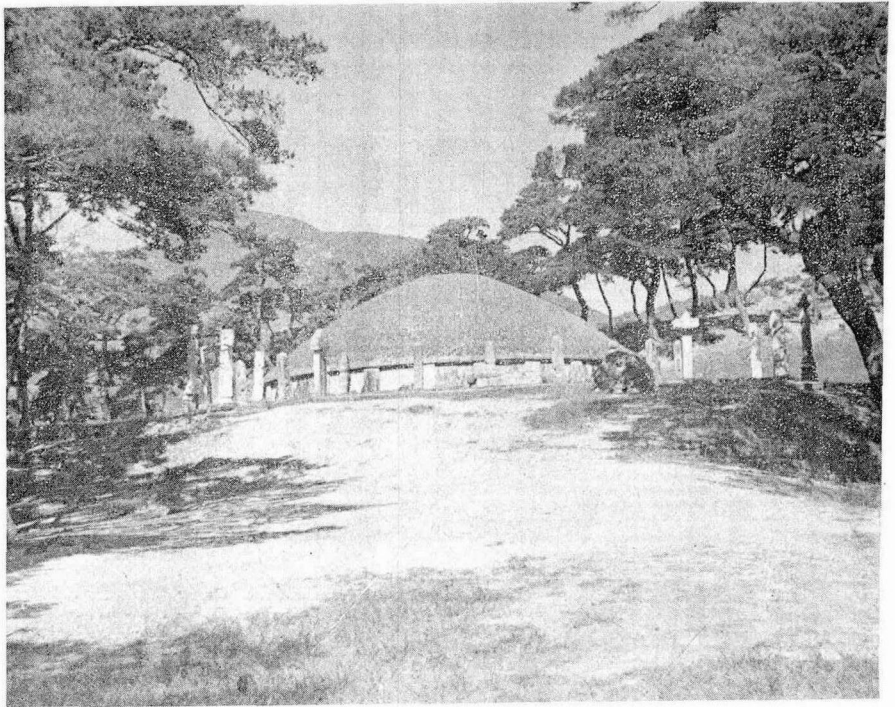


圖 2. 金 庾 信 墓

文獻에 歷歷하며 由緒가 深遠한 新羅의 陵墓 七·八基가 或은 否定되고 或은 各陵墓의 主人公이 이리저리 바뀌어져 尊嚴한 史蹟인 新羅陵墓에 一大混亂이 빚어 지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見解를 다시금 밝히 諸 必要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을 遺憾으로 여기면서 便宜上 某氏의 論據點을 대개 列舉하여 辨正의 形式으로 鄙見을 披瀝하려 한다.

金庾信墓에 對한 某氏의 異說은 이미 昨秋에 某新聞을 通하여 二·三次 發表가 되었고 이제 또 다시 某紀念論文集에 金庾信墓考라는 題目으로 그것을 反覆하여 실었는바 그의 要旨는 前後를 通하여 대략 同一한 데 그 사이에 조금 다른 點이 있다면 그 동안 여러 新聞紙上에 發表된 反論에 若干의 苟且스러운 辯解가 添加되었을 뿐이다. 이제 某氏의 說을 간추려 보면 史蹟第二十一號 松花山의 金庾信墓를 가리켜 金庾信墓가 아니라 神武王陵이라 하고 金庾信墓는 武烈王陵 附近에 있는 現存 金仁問墓 그것이며 金仁問墓는 본래 西岳書院차리에 있던바 朝鮮 明宗때 西岳精舍(西岳書院의 前身)가 세워지기 前에 이미 封土가 허물어져 平地化되어 거기에 西岳精舍가 세워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이 奇想天外의 臆說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① 石造儀物에 關한說을 내세웠다. 某氏는 新羅陵墓의 護石 및 十二支神像 石欄干等 石造儀物을 가리켜 Circle stone에서 次第로 發達된 形態로서 統一初까지도 없었던 것인 바 이러한 儀物을 갖춘 點으로 보아 現傳 松花山의 金庾信墓는 到底히 일개 신하나 王族의 무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最高權威을 表象하는 堂堂한 王陵인것을 直覺적으로 認識케 한다는 것, 또 그러한 石造儀物을 가진 陵墓를 가리켜 『多小 特記할만한 業蹟이 있는 王陵 또는 두드러진 業蹟이 있는 王陵에 限하여 있는 것』이라 하고 『實質의 인 王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修飾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하물며 追封王에 있어서라 만일 그러한 例가 있다면 統一期中의 許多한 追封王의 墳墓도 그와 같은 樣式의 修飾으로써 改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實際 그러한 例와 遺蹟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風水地理說云云 某氏는 말하기를 『景德王 以後의 陵墓는 흔히 風水地理에 符合되는바 이 風水地理思想은 唐으로부터 傳來된 것이다』하고 또 말하기를 『新羅의 陵墓는 統一前으로부터 統一初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原野나 山麓 或은 丘陵을 利用하였다』하여 松花山의 金庾信墓를 가리켜 風水地理上 『藏風得水』格이라 命名함과 아울러 風水地理說의 影響을 받은 景德以後의 陵이라는 것 ③ 金山原과 松花山·西岳里에 對한 某氏의 錯覺 ④ 現傳 金庾信墓의 主人公이 神武王이라 하고 그 混淆된 經過에 關한 恣意的 解說 ⑤ 金庾信墓否定에 隨

伴되어 일어난 여러가지 連鎖의 波紋 等を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列擧한 條項에 따라 吾人の 見解를 들어 보기로 하자.

(1)의 境遇에 對하여 우리의 見解에 依하면 金庾信은 三國統一의 元勳이요 新羅最大의 英雄으로서 後世에 까지 崇仰을 받는 人物이며 舊駕 洛國 王統의 直系인 名門巨族으로 當時 金春秋의 家門과 서로 거를만한 地位에 있던 것은 그 兩家 사이에 結婚이 겹드러진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金庾信이 當時 花郎의 中心人物로서 三國統一의 偉勳을 세우고 文武王 十三年(西紀 673) 七月 一日에 逝去한지 百數十年 後인 興德王 때에 마침내 興武大王으로 追封되었다. 이러한 金庾信의 追封은 어디까지나 國家元勳의 功勞에 對한 國家로서의 報答의인 褒典인 것으로서 저 許多한 國王들의(傍系로 부터 들어와 承統한 임금들) 直系 尊屬(父·祖等)에게 儀例的으로 追尊 또는 追諡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醜怪無雙한 例로서 眞聖女王이 그의 私夫人 角干 魏弘에게 惠成大王이라 追諡한 것과는 事理上 또는 身分關係上 本質的으로 事情이 서로 다른 것이다. 金庾信이 興武大王으로 追封됨을 따라 當時 朝廷에서나 또는 그의 子孫인 金海金氏系의 一門에서는 人臣으로서 特殊勳功에 依하여 大王으로 身分이 바뀌어진 만큼 그 墳墓도 그러한 身分에 맞도록 當時 王陵의 儀物을 갖추어 놓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인 것이다. 저 石造儀物을 가춘 王陵에 對한 某氏의 持論인 『多小 特記할만한 業蹟이 있는 王陵 또는 두드러진 業蹟이 있는 王陵에 限하여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論法이야말로 金庾信墓의 境遇에도 逆說明이 되는 것이 아닐런가 한다.

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金庾信墓의 石造儀物은 그것이 興德王時代에 된 것인 만큼 興德王陵의 그것과 서로 雙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또한 偶然한 일이 아니라 實事이다. 그리고 三國遺事·金庾信墓에 『追封公 爲興武大王 陵在西山毛只寺之北 東向走峯』이라 한 것으로 보면 高麗時代에도 이 墳墓를 陵이라 일컫는 것은 이러한 石造儀物을 가추고 있던 것이 한가지 條件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某氏는 新羅陵墓의 石造儀物(基壇部의 護石·屏石·十二支神像·石欄干等)을 가리켜 所謂 circle stone에서 發達된 것이라 하고 이것을 尺度로 하여 統一時代의 陵墓(主人公)를 再評定하였는바 circle stone云云의 根據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元來 circle stone은 新石器時代의 어느 信仰에서(太陽崇拜에서 由來하였다는 說도 있음) 나온 한가지 遺蹟으로 보는 것이 普通인바 이 circle stone을 墳墓의 護石 乃至 屏石·十二支神像·石欄干等에 까지 延長시켜 그의 發達形態인 양 主張하는데에는 啞然치 아니할 수가 없는 터이다. 우선 다른 것은 아직 그만두고 單純한 護石만 가지고 보더라도 만일 護石이 circle stone의 系統에 屬하는 것이라면 上古로 올라갈수록 護石을 두른 墳墓가 많아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 古代墳墓는 上古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한 痕跡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事實에 있어서 所謂 circle stone과 우리나라 古代墳墓의 石造儀物과는 何等的 關聯이 없는 것이다. 墳墓에 護石을 두르는 것은 中國에도 上古 以來로 行해오는 것으로서 新羅統一期를 前後하여 護石乃至 屏風石이 나타난 데에는 中國의 影響이 적지 아니한 것이며 統一後에 흔히 나타나는 石欄干·十二支像等 儀物도 新羅固有의 工藝의 바탕에 唐의 影響이 서로 어울려 壯麗한 設像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이미 常識에 屬하는 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某氏는 護石施設의 精拙과 護石의 高低等으로서 記錄과 口傳이 分明한 統一期前後의 王陵을 再評定하였다. 이에 對한 一例로서 煩雜하나마 某氏의 原文을 들어 更論할까 한다. 某氏는 그의 論文에서 『傳神文王陵의 屏石과 支柱石의 樣式은 확실한 Circle stone의 殘滓에서 本格的인 屏石·十二支像 내지 石欄干等의 制로 옮겨가는 過渡期的 中間形態의 것으로 認識되는 同時에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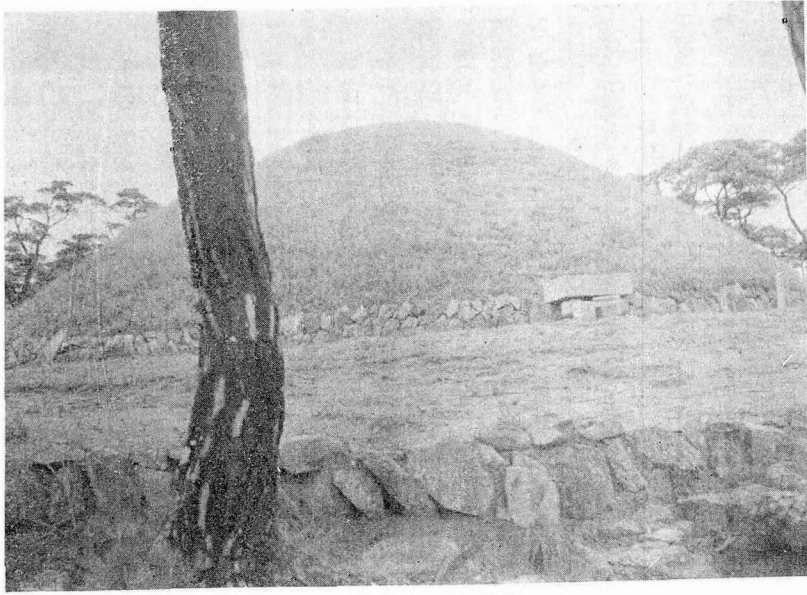


圖 3. 善德女王陵

고 護石 또는 屏石과 같은 것은 統一期의 前後로 부터 近世朝鮮에 까지 主로 王陵에 施設 되어 내려왔던 것으로 이 는 陵墓의 封土를 保護하기 爲한 手段인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마치 時間을 재는 尺度 또는 輕重을 다루는 저울처럼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護石·屏石의

은 所傳과 같이 神文王의 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孝昭王陵이 아닌가 지금의 傳孝昭王 陵은 疑問의 것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中間形態의 것이 같은 排盤里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는 卽 狼山南頂에 位置한 『傳善德(女)王陵』이라고 傳하는 陵墓가 그것이다. (中略) 또 이러한 樣式上으로 볼때 『傳善德王陵』은 결코 統一以前이 것이 아니라 그以後의 것임이 의심없으며 따라서 이 陵은 神文王의 뒤인 孝昭王陵이 아니면 바로 神文王陵이 아닌가 어쨌든 前後兩者는 父子間陵에 틀림없을 것이다』라 하였다. 某氏가 頻頻히 들고있는 Circle stone에 對하여는 위에서 이미 言及하였거니와 新羅陵墓에 있어 十二支神像은 別問題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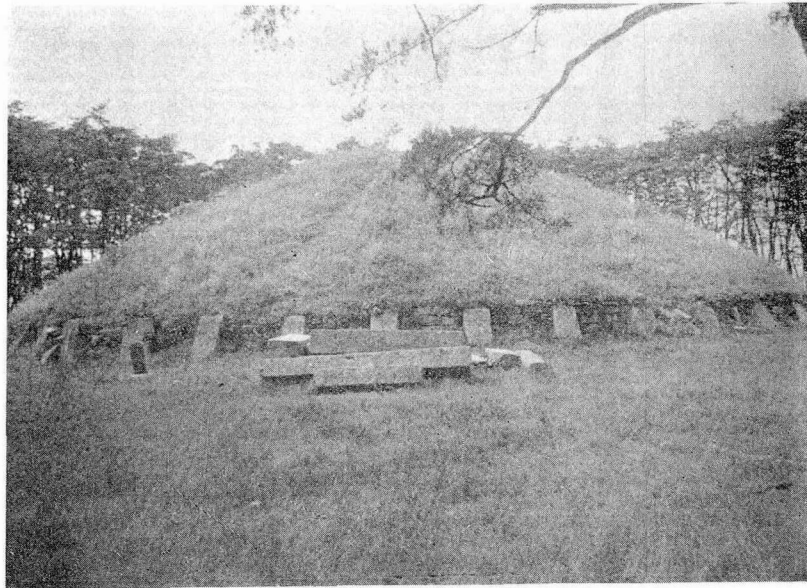


圖 4. 神文王陵

의 石造儀物을 가춘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것도 있지 아니한가? (某氏는 多小 特色있는 印문 또는 두드러진 業蹟이 있는 印금의 陵墓에 그것이 배풀어졌다. 하나만든지 그렇지도 않음을 아래에서 更論할터) 新羅 智證王·法興王 以後로는 中國文化의

有無로서 限界線을 삼아 그것이 있는 것은 統一以後의 것이요 그것이 없는 것은 統一以前의 것이라 하여 마치 神聖不可犯의 規格처럼 여기고 있는 듯하다 元來 文化現象 特히 複合文化의 現象에 있어서 는 그 어느一面을 標準으로 하여 그것의 性格이나 時代의 關係를 機械적으로 劃一化시키는 어려운 것인바 喪葬과 같은 儀式이나 儀物에 있어 더욱 그러한 것이다. 陵墓制에 있어 唐制의 影響을 받고 있던 當時에는 때로는 唐制의 成分이 보다 더 攝取되기도 하고 固有의 것이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 境遇도 있는 것이 어찌 三國統一의 年代를 境界로 하여 唐制의 影響을 機械적으로 調節할 수가 있겠는가? 저 統一以後의 新羅王陵에도 多樣

影響을 加速度的으로 받아 制度文物에 많은 變化를 이르렀는데 어찌 陵墓制는 統一을 기다려 받아야만 하였으며 또 그때에야 받게 되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古新羅末期에 護石이 陵墓에 둘러져서는 안된다는 理由가 어디 있었는가? 某氏가 恣意로 否認 또는 變換시키고 있는 善德·神文·孝昭 三王의 就葬年代의 距離가 五十餘年에 (善德女王的 崩年이 六四七、神文王의 崩年이 六九二·孝昭王의 崩年이 七〇二) 不過한데 이 짧은 期間에 이룩된 王陵들을 저 曖昧 模糊한 現存 護石狀態로 그의 眞假를 새삼스럽게 가려낼수가 있었는가? 더우기가 三王의 陵은 三國史記·三國遺事를 비롯하여 東國輿地勝覽·東京雜記等에 昭昭히 記載되어 있는 것이다. ⑦ 이러한 歷代史乘의 記錄까지도 거의 無視 또는 度外視하고 Circle stone의 殘滓云云하면서 陵墓의 主人公들을 이리 저리 바꾸어 놓은 結果 歷代의 史乘이 正確한 位置를 (狼山·狼山之陽·狼山南嶺·狼山南嶺) 보여주고 있는 善德女王陵까지 行方조차 不明게 되었으니 이 陵은 장차 어느 墳墓에다 配定시킬 작정인가?

(2) 風水地理에 關한 이야기 某氏는 『景德王以後로는 唐으로부터 風水地理思想을 받았다』하여 松花山의 金庾信墓를 가리켜 『藏風得水』格이라 命名하였는바 이는 일지기 日人 關野氏가 金庾信墓를 金仁問墓로 擬定하는 한가지 論據(?)로서 『金仁問은 오랫동안 唐에 있어 이 墓의 地相이 매우 唐 高宗의 乾陵을 닮고 있음은 이 說을 證明하는 것이다.』—譯—라 한 것과 ⑧ 對比를 이루고 있는 듯싶다. 元來 風水地理說은 新羅末년부터 一部에서 行하기 시작하여 高麗朝 乃至 朝鮮朝에 盛行하였거니와 高麗時代의 그것도 주로 奠都·築城·住宅等 所謂 陽基에 그 說이 利用되었고 陰宅 卽 墓地에 쓸리케 된 것은 주로 朝鮮朝에 들어서의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新羅時代(統一)의 陵墓에 그 說이 附會되지 아니하였음은 統一新羅를 通하여 佛教의 盛行으로 王室을 비롯하여 貴族社會에 火葬이 盛行하였던 것으로도 推察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某氏는 松花山의 金庾信墓에 對하여 風水地理上 『藏風得水』格이라 이름을 부쳐 그것을 否定하는 한가지 口實로 삼고 있다. 이 所謂 『藏風得水』라는 것은 錦囊經에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라 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서 陰宅에 있어 『藏風得水』는 가장 좋은 形局인듯한데 果然 金庾信墓가 그러한 格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기가야 村風水를 불러대면 平地의 墳墓를 좋게 評價할 때에는 『平沙落雁』格이라 할 것이요 丘陵과 山稜에 있어서는 그 形局을 따라 『飛龍弄珠』形이니 『天女散花』形이니 『飛龍上天』格이니 하여 여러가지 條件으로써 牽強 附會를 일삼을 것이다. 要컨대 新羅時代의 陵墓에 風水說을 附會하려면 當地의 形局만 가지고 云謂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바침할만한 여러가지 條件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某氏는 『新羅의 陵墓는 統一前으로부터 統一初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原野나 山麓 或은 丘陵을 利用하였다』하여 隱然히 松花山의 金庾信墓를 가리켜 統一初期의 것이 아니라는 伏線을 편 모양이지 마는 伽耶古墳이나 또는 狼山南嶺에 있는 善德女王陵의 (某氏는 自己說의 矛盾을 방과하기爲하여 이것을 가리켜 넌지시 『神文王의 뒤인 孝昭王陵이 아니면 바로 神文王陵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例를 보아도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3) 金山原과 松花山과 西岳里問題 三國史記 金庾信傳에 『出葬于金山原』이라 하였는바 이 金山原이라는 名稱은 新羅時代부터 있던 것으로 믿는바이니 元來 金庾信傳은 그의 玄孫인 新羅 執事郎 長淸이 撰한 行錄(十卷)을 간추려 묶은 것이다. 그러므로 本列傳은 三國史記의 다른 列傳과 달라 當代의 記錄을 그대로 採錄한 것이니 이러한 點도 우리의 注意를 끌던바이다. 그런데 金山原은 지금 松花山을 가리킨 것임은 지금도 松花山을 『옛쇠두미』라 부르는 것으로도 알수가 있다. 『옛』은 『古昔』의 뜻이요 『쇠두미』의 『쇠』는 金の 訓이요 『두미』는 山峽의 稱인 『두메』의 音變인 것으로 여기에는 蛇足を 덧붙일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某氏는 『옛 두미』에 對하여도 자못 要領을 잡기 어려운 풀이를 하여 스스로 두가지 設問 즉 『쇠』와 『두미』의 合成語인가? 그렇지 않으면 『쇠두』와 『미』의 合成語인가? 를 들어 놓고 前者에 對하여는 一般的으로 解釋하고 있는바와 같이 풀이한 다음에 그는 다시 繼續하기를 『그러나 後者와 같은 것이라면 『쇠두』와 『미』는 『仙桃山』 그것이다. 仙桃山 즉 西岳에는 이 山의 神인 聖母(婆蘇)를 모시는 神祠가 있었던 만

금에로부터 神聖地域이었을 것이다. 또 神聖地域이라 하면 三韓時代의 神
 邑인 『蘇塗』에 틀림없는 것이다. (中略) 나의 所見으로는 『仙桃』는 바
 로 『蘇塗』를 雅化한 音譯라고 위의 『쇠두미』의 『쇠두』도 蘇塗의 音變이
 라고 볼 수 있다. 『미』는 무엇이나 하면 즉 山의 뜻인 것이다. (中略) 다음
 問題로 그 위에 붙은 『옛』은 무슨 뜻인가?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古昔의
 語인 『옛』 그것이니 『옛쇠두미』는 舊仙桃山 舊蘇塗山의 뜻이 되는 것이
 다. 이렇게 新舊의 별이 있다면 合理的으로 解釋해서 舊舊을 지금의 松
 花山、新舊을 지금의 西岳에 比定할 수 있을 것이다. (中略) 어쨌든 지
 금 西岳아래에 展開된 平原 즉 西岳里方面을 『金山原』이라 하였던 것 같
 고 따라 金庚信墓도 이 方面의 『角干墓』에 比定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이다. (中略) 勝覽에 太宗陵 金庚信墓는 분명히 西岳面에 있다고 하면
 서 『云云』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某氏는 音韻上 풀이로서 『쇠두미』의
 『쇠두』는 『仙桃』와 같다 하여 ⑨ 『쇠』 『仙』으로 풀이하였는데 이러한 論
 法으로 나간다면 S의 初聲을 갖은 音이면 무엇이건 S系의 音과 서로
 通한다는 結論까지도 나릴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蘇塗에
 對한 우리 見解에 依하면 魏志 韓傳에 보이는 蘇塗는 무슨 山陵이나
 平原의 地面을 말한 것이 아니라 『立大本 縣鈴鼓 事鬼神 云云』이라 한만
 큼 이디까지나 Shaman 的 儀式場所를 말한 것이요 陵墓가 배풀어진 곳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리고 某氏는 『쇠두미』를 다시 新舊로 나누어 舊쪽
 을 지금 松花山이라 하고 新쪽을 지금 西岳으로까지 敷衍 比定한 것은
 그가 金庚信墓를 새로이 配定하는데 있어 가장 큰 根據로 삼는 輿地
 勝覽의 『金庚信墓在府西西岳里』라한 이 西岳里說을 뒷받침하기 爲한
 伏線에서 나온 것이라 하거니와 吾人의 보는 바로는 지금 松花山을 『옛쇠두미』
 라 부르는 것은 松花山이라는 이름이 金山原에 새로이 부쳐진 뒤의 일인
 듯하다. 그리고 某氏는 現在 金仁問墓를 金庚信墓로 換易하려는 先入見
 에서 『西岳里라면 대체로 지금과 같이 西岳下에 展開된 原野』 즉 武烈
 王陵·角干墓(金仁問墓)를 두고한 말이나 이에 關하여는 아래에서 다
 시 論할터) 및 西岳書院一帶를 包含한 地域으로 볼 것이다. 決코 이와 別
 區域인 松花山一帶(忠孝里)에 까지 미치는 里名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하였다. 그러나 元來 西岳里라는 地名은 그 範圍가 廣汎한 것으로서
 지금 西岳里一帶로부터 忠孝里(松花山所在)에 까지 미쳤던 것이니 金
 山原이 西岳里의 範圍에 들어 있었음은 仁祖二十年(一六四二) 壬午에
 鄭克後가 編纂한 西岳誌 塋墓條에 『開國公墓⑩ 在今 慶州府西五里 西岳
 里 卽所謂金山原也』라 하였으며 前舉 海東金石苑(卷二) 『唐新羅角干墓
 十二神畫像』條의 跋文에도 『右十二神畫像 在朝鮮慶尙道慶州府西岳角干
 墓前』이라 하였고 日帝初期까지 金山原 즉 松花山이 西岳里에 들어 있었
 다⑪. 그리고 지금 忠孝里에는 『자근 시악』(小西岳)이라는 部落의 名稱
 이 있는 것으로도 古來로 廣汎하던 西岳里가 慶州都市의 發展에 따라
 分化되어 行政區域上 忠孝里라는 새 洞名과 區域이 松花山地域에 생겨
 나게 된 過程을 明白히 認知할 수가 있는 것이다.

(4) 角干墓는 元來 하나인 것 慶州에서 角干墓라면 예로부터 지금 松
 花山의 金庚信墓를 指稱한 것이다. 世宗實錄(卷一五〇) 地理志 慶州
 條에 『新羅大角干金庚信墓在毛只寺北峯 距府西四里』라 하여 新羅의 陵墓로는 이 角
 干金庚信墓와 新羅始祖赫居世王陵을 들었음 뿐이며 歷代史乘에 보이는
 角干墓도 곧 이 毛只寺北峯(松花山)의 金庚信墓를 가리킨 것이다. 그런
 데 某氏는 角干墓를 現存 金仁問墓에 擬定한 나머지 東京雜記·祈雨
 所條에 祈雨所의 하나로 나타나 있는 『金角干墓』를 들어 『角干墓 즉 金
 庚信墓의 指稱임은 바로 그 위 陵墓條에 (東京雜記의 것)을 가리킨 것』
 勝覽의 記事를 이끌어 『金庚信墓 在府西 西岳里』라고 하였음으로써 알
 수 있다. 西岳里의 金庚信墓라면 角干墓(金仁問墓)를 이와 같이 말한
 것)를 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 한 것은 西岳里의 範圍에 關
 한 그의 錯覺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그런데 某氏는 該論文에서 『松花山
 上의 問題의 陵墓를 所傳과 같이 金角干墓로 알고 친히 祭祀하였다』하
 여 耳溪 洪良浩를 非難하였거니와 그 耳溪가 慶州府尹으로 있을 때에 大
 角干墓에 祈雨한 祈雨文이 耳溪集(卷一三)에 실려있다. 이로 보면 英
 祖 때 慶州祈雨所의 하나인 角干墓는 바로 松花山에 儼存한 金庚信墓인
 것이 立證된 以上 지금 某氏가 主張하는 現存 金仁問墓가 祈雨所로서의
 角干墓가 아니었음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 一例로만 보아도

지금 金仁問墓가 角干墓가 아니며 또 西岳里의 範圍가 지금 松花山一帶에 까지 미쳤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元來의 角干墓란 지금의 金仁問墓가 아니요 松花山에 있는 金庾信墓를 가리킨 것이 明白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某氏가 角干墓라고 指稱하는 墳墓는 實로 金仁問의 무덤인 것이니 該墓附近에 殘存하는 龜趺의 碑石下半部가 日帝때에(該龜趺로부터 二百米許에 있는) 西岳書院構內에서 發見됨으로써 該墓의 主人公이 金仁問임도 世人으로 부터 確認되었다. 要컨대 角干墓라면 古來로 오로지 松花山의 金庾信墓를 指稱해온 以外에 또 다른 角干墓는 없었다.

(5) 松花山 金庾信墓의 主人公問題 某氏는 新羅王陵의 再配定에 있어 마치 成績表로써 等級을 매기듯이 各王의 政績을 主觀의 以로 評價하여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或은 否定도 하고 있다. 所謂 石造表飾物(石造儀物)이 배풀어진 陵의 主人公은 特色있는 임금· 두드러진 業績이 있는 임금이었다는 前提 아래에서 景德王以後의 그럴사한 임금들을 抽出하여 『元聖王·憲德王·興德王·神武王等을 먼저 손꼽을 수 있고 云云』 하면서 『元聖(掛陵)·憲德·興德의 三王陵은 石造表飾物이 모두 갖추어졌음으로 그러한 表飾物이 없는 傳神武王墓(慶州市 東方里)는 진짜 神武王陵이 아니요 松花山의 傳金庾信墓가 곧 神武王陵이다』라 하여 그 理由로는 (A) 『神武王은 反正主』이며 또 音韻上으로 보아 『神武王陵』이 『興武王陵』으로 訛傳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며 (B) 『이러한 訛傳이 어느 때 부터 시작되었는가는 물론 자세히 않는다. 文獻上으로 볼때는 三國遺事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그 以前에서 부터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某氏는 또 東國輿地勝覽의 『金庾信墓 在府西 西岳里』라는 記事를 들어 『三國遺事·世宗實錄 地理志 記載(○三國遺事說과 같은)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新說이(西岳里說) 생긴 것은 아마 새로운 史料나 根據에 基因한 것이 아닌가, 要컨대 勝覽編纂當時에 있어 角干墓(金仁問墓를 말한 것)를 金庾信墓로 알았던 것은 否認치 못할 사실이다』하고 또 『李退溪의 門人인 李楨이 明宗十六年頃에 慶州府尹으로 있을 때에 太宗武烈王陵과 角干金庾信墓를 補修하고 이 두분을 아울러 받드는

祠廟를 세우려 하였던바 이에 對하여 退溪는 一個郡守로 帝王의 祠廟를 세우는 것은 物議도 있을 것이니 祠廟는 角干에 限하여 세우고 또 武烈·角干의 陵墓를 아울러 守護하되 三兩人으로써 맡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매 李楨은 退溪의 말을 좇았다』는 退溪集과 龜岩集(李楨의 文集)의 記事를 들어 말하기를 『만일 當時 所傳의 金庾信墓가 武烈王陵에서 隕仙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단지 몇사람으로써 두 墳墓를 함께 守護하라고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中略) 만일 그때 角干墓(○金仁問墓를 가리킨 것)를 金庾信의 무덤으로 認定하지 아니하였다면 유독 金庾信만을 奉祀하는 祠廟(西岳精舍)를 구태어 角干墓(同上)附近에 建立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 하였다. 그리고 成宗時代以後(輿地勝覽編纂時를 말한 것) 다시 되찾았다는 金庾信墓가 어찌하여 朝鮮朝 後半期에 이르러 所傳이 또 다시 變動되었는가에 對하여 某氏는 『자세히 는 알 수 없으나 아마 壬辰倭亂·丙子胡亂이란 몇차례의 混亂期를 겪는 사이에 墳墓는 더욱 荒廢하여지고 所傳마저 흐릿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自答하였다. 이러한 여러 地點에 對하여 煩瑣하나마 吾人의 見解를 들어 보자 (I) 石造表飾物이 배풀어진 陵의 主人公은 特色있는 임금· 두드러진 業績이 있는 임금인 것이라 하여 神武王이 『反正主』임을 들어 松花山 金庾信墓의 새 主人公을 삼았는바 그러한 石造儀物을 갖춘 임금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러한 條件을 지니지 못한 임금도 (興德王이 그의 一例) 있는가 하면 神武王 金祐徵을 가리켜 『反正主』라 추켜세웠으나 이는 反正主라기 보다는 淸海鎮(莞島) 張保臬의 군사를 빌어 그의 政敵인 閔哀王 金明을 打倒하고 王位를 빼앗았다가 在位 六·七個月에 逝去한 人物이 아닌가? 新羅下代에 있어서도 某氏가 내놓은 條件을 充足시킬만한 임금은 이 神武王보다도 어려서부터 聰敏으로有名하였고 太平盛世를 누렸다는 憲康王도 있지 아니한가? ② 어찌든 某氏는 이와같이 神武王을 反正主로 추켜세워놓고 神武王陵이 興武王陵으로 訛傳되었다 하여 『神』과 『興』이 音韻上으로 訛傳될 수 있는 것 같이 主張함은 前舉 『옛쇠두미』와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音韻上의 풀이를 이같이 自由自在로 한다면 單語와 名稱에 있어 서로 關聯을 붙이지 못할 것이 어

더 있었는가? 하물며 興武王陵(金庾信墓)과 같은 陵墓는 그 子孫과 國民들의 귀에 依하여서만 傳해내려온 것이 아니라 눈에 依하여 지켜져 온 것임에라 (II) 金庾信墓의 變動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 某氏는 金山原松花山이 본來 西岳里에 所在하였음을 알지 못한 나머지 訛傳(?)의 罪를 三國遺事에 돌리기도 하고 되찾은 功을 輿地勝覽에 賦與하기도 하여 空然한 穿鑿을 일삼아 필야에는 金庾信墓와 西岳精舍와의 距離問題·陵墓守護問題·壬辰倭亂·丙子胡亂問題까지 들추어 내기에 이르렀다. 某氏는 退溪·李楨의 問答를 들어 『金庾信을 奉祀하는 西岳精舍(西岳書院)가 金庾信墓에 가까워야 하며 또 三兩人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兩墓(武烈王陵과 金庾信墓)를 守護하기 어려운 것이니 일로 보면 武烈王陵과 金庾信墓는 서로 隣接하여야 된다』라는 趣旨를 들어 現存 金仁問墓를 金庾信墓로 바꾸어 치면서 明宗때까지도 (退溪·李楨의 問答에 依據한 年代) 現存 金仁問墓가 金庾信墓로 認定된 證據를 삼고 있는가 하면 『朝鮮 後半期에는 松花山の 元神武王陵이 金庾信墓로 또 다시 變傳된 것이라』하고 그 原因으로는 前舉한 바와 같이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混亂을 들고 있다. 要컨대 이도 또한 輿地勝覽에 金庾信墓의 位置를 가리켜 西岳里에 있다 한 것을 資料에 依據한 것으로 錯覺하고 自己主見에 어거지로 맞추어 보려는 데에서 나온 杜撰이거니와 이에 對하여도 煩瑣하나마 우리의 見解를 밝혀 줄 必要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某氏는 西岳精舍의 位置를 가지고 自己의 主張을 補強하려 하고 있는바 元來 祠宇란 墓齊와는 달라 當該受享者의 墳墓에 반드시 隣接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現存 金庾信墓와 西岳書院(精舍)과의 距離는 招呼之間에 있을 뿐만 아니라 李楨이 앞서 合祀하려던 武烈王陵과도 거의 等距離에 位置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三兩人으로는 지금 松花山の 金庾信墓와 西岳里의 武烈王陵을 守護하지 못한다고 우기고 있으나 그 兩陵墓는 서로 一丈餘 程度의 距離에 있음으로 三兩人은 커녕 一二人으로도 足할 것이 아닌가? 그다음 倭亂과 胡亂의 混亂으로 陵墓가 荒廢되고 所傳마저 흐릿하게 되었다 하나 一時的인 亂을 만났다가하여 千餘年 동안 많은 國人과 子孫들이 지켜온 偉人의 墳墓가 失傳되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

니하는 말일뿐 더러 壬辰倭亂中이나 그 亂後에 걸쳐 金庾信墓의 祭祀와 修治가 뒤를 이어 行해졌던 것이 實錄을 비롯하여 여러 文獻에 歷歷히 실려있어 조금이라도 所傳이 흐려질만한 間隙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關한 몇가지 例를 들어 보면 月庵(金唐) 家狀에

萬曆之壬辰 倭寇大入 而四月十四日 萊府陷 賊勢鳴張(中略) 列邑官長 軍校 皆望風奔潰(中略) 十八日 府伯使孫時 行金角干墓祭

라 하였고 宣祖實錄(卷一四六) 三十五年 壬寅 二月戊辰條에 傳曰 前代諸王陵墓 經變之後 似當令各 某本官 修治破毀 禁其樵牧 前代忠臣 如新羅之金履(○庾)信·金陽 百濟之成忠·階伯 高麗之姜邯贊·鄭夢周之墓 亦似當封墳 禁其樵牧

이라 하였고 同書(卷一六六) 宣祖三十六年 九月 壬戌條에

禮曹啓曰 聞見未博 典籍無憑 勢難舉行 令各官 在前所封植修治前代諸王及忠賢 表表稱著 在人耳目 不至湮沒(○湮沒)者 一一訪問 啓聞後 處置次(下略) 禮曹又啓曰(上略) 依啓下表表稱著 及前代諸王陵墓各以啓本內所載 開錄于左(中略) 前代諸王及忠賢 必不止此(中略) 各道監司處 更爲移文 詳細訪問 馳啓事 行移如何 啓依允 江原道寧越魯山君墓 開城府 高麗始祖顯陵境內 昭穆十處 慶尙道金海 駕洛國始祖首露王陵 慶州新羅始祖赫居世墓(中略) 大角干金庾信墓(下略)

라 하였으며 光海君日記(鼎足山本 卷二五) 光海君二年 二月 壬子條에 도 傳曰 前代諸王陵墓 年久之餘 守護無人 必多頽毀之患 令各其本官 從便修掃 禁其樵牧 前代忠臣表表著者 如新羅之金庾信 金陽 百濟之階伯 成忠 高麗之姜邯贊 鄭夢周等 亦令封植其墓 禁火禁我 此只舉其 一二餘不能盡言 이라 하였다. 그리고 光海君五年에 當時 慶州府尹인 東岳 李安訥撰『鄉舍懸板』記文中에도

舒發翰金公 挺生羅代 協謀太宗 統合三韓 安定一鄉 威烈不滅 後世永賴 以鄉賢建廟 春秋享祀 在今日 崇重之典 已爲至矣 而塋封翳然 樵牧無禁 故老咸痛 行路亦嗟 可於每歲 寒食秋夕 兩俗節 官備奠物 校差祭員 先期齋戒 行事虔恭 仍修護頽毀 剪除荒蕪 使一鄉永世不忘之義 益著於千百載之下 而無墜也 其祭文曰 云云



圖 5 金 仁 問 墓

關인 金山齋
도 金山原에
서 由來된 名
稱인 것이다.
일로 보면 壬
辰倭亂·丙子
胡亂과 金庚
信墓와는 全
然關係가 없
던것이 明白
히 드러나지
않는가?
(6) 金仁
問墓問題 某
氏는 現存 金
仁問墓를 否
定하고 이것
을 金庚信墓
로 바꾸어 처
기 爲하여 대
개 두가지條

이라 한것들로 보아 某氏의 壬辰倭亂云云의 說은 成立되지 못하는 것이
더구나 丙子胡亂云云에 이르러서는 實로 語不成說의 역지인 것이니
丙子胡亂의 戰禍는 본래 三南에 까지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前
舉 仁祖二十年에 編纂된 西岳誌에도 『開國公墓 在今慶府西五里 西岳里
卽所謂金山原也』라고 明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以後에도 西岳里
松花山에 있는 金庚信墓가 綿綿히 各文獻에 실려 있으니 肅宗 二十六年
에 慶州府尹 南至薰이 新羅 太角干 金庚信墓碑를 세운 것은 (現存) 某氏
도 指摘한 바 이니와 前舉 海東 金石苑에도 角干墓를 가리켜 『在朝鮮慶
尙道慶州府西岳』이라 하였으며 지금 松花山 東南麓에 있는 金庚信의 墓

件을 들었는데, 하나는 該墓의 樣式이 (circle stone 云云하면서) 武烈王
陵과 大同小異하여 時代性에 맞는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金庚信墓에는
本來 碑가 있었는데 (金庚信 本傳에 보인) 松花山의 그것에는 碑가 없
으니 現存 金仁問墓附近의 龜趺가 곧 金庚信墓碑의 것이라 하였다. 某氏
는 이러한 主張을 내세우기 爲하여 처음에는 該龜趺에 重點을 두어 西岳
書院構內에서 發見된 金仁問墓碑의 下半部에 對하여 昨秋 某新聞紙上에
서는 該碑身(실상은 碑鏤)과 該龜趺의 碑座穴은 「사이즈」가 서로 맞지
아니하니 該龜趺와 該碑는 別個의 것이라 主張하다가 專門家들의 實測과
發表가 다시금 나타나자 이제는 이 兩者가 대개 맞으나 自身이 慶州에
가서 古碑들을 調査한 結果 『武烈王陵의 龜趺碑座穴은 別問題로 하고 (너
무 規格이 큼으로) 其他의 것은 碑座穴과 碑身의 「사이즈」가 대개 서로
近似하다』하여 이제 와서는 『金仁問墓碑를 꼭 該龜趺에 서로 關聯시
킬 條件이 되겠느냐는 것』을 再三 強調하는가 하면 徐居正의 『過金庚信
墓詩』 가운데의 『金老墳前石獸危』라는 것까지 이끌어 『石獸危』의 『危』를
端坐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저 金仁問墓附近에 있
는 龜趺는 該墓와 같이 平原地帶에 있음으로 일부러 山地에 있지 아니하
였다는 그의 臆測을 뒷받침하기 爲하여 『危』를 『危坐』 즉 『端坐』의 뜻
으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見解로는 『右獸危』라 함은
그 龜趺가 (某氏의 見解와 같이 그 龜趺를 가리켜 石獸라 하였다면) 山
비탈에 있음은 그대로 表現한 것이라 할것이니 後世에 이르러 碑(金庚
信墓의)는 勿論이요 그 龜趺조차 破損되었거나 山谷에 轉沒되었으리라
고 생각된다. ④ 그리고 某氏는 該墓의 樣式이 武烈王陵과 相似하다하여
金庚信의 墓라고 主張하나 金仁問은 武烈王의 第二子이니만큼 父子의
墓가 서로 類似할 것은 當然한 일이나 아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金庚
信과 金仁問의 卒年의 距離가 二十一年 밖에 되지 아니하는바 ⑤ 이 二十
一年의 間隔을 두고 墓制에 있어 그와같은 鴻溝의 線 즉 金庚信墓라면
되고 金仁問墓라면 그것을 認定할 수 없는 境界線이 그어질 수가 있겠
는가? 某氏는 이처럼 金仁問墓를 金庚信墓로 바꾸어친 다음에 問題의
金仁問墓는 ⑥ 어떻게 處理하였는가 하면 累述한바와 같이 該墓는 本來

西岳書院자리에 있었는데 그封土가 陵夷되어平地처럼化하였으므로 그 자리에 西岳精舍를 지었으며 그곳에 있던 碑도 下部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하고 아울러 該碑는 前舉龜趺와 二三百m 떨어져 있음으로 別個의 것이라고主張하였다. 이와같이 某氏는 金仁問墓問題를 處理함에 있어 殘碑가 發見된 그 位置에 比定하려는 속셈에서 龜趺와 碑의 距離를 내세웠으나 慶州地方에 있어 古碑와 古石物의 殘部가 石材使用의 人爲的 移運 또는 自然徙移로 말미암아 原位置로부터 그만한 距離로 옮겨진 것은 지금도 흔히 發見되는 事實이 아닌가? 만일 某氏의 論法대로라면 該碑의 殘部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만큼 碑보다도 더 厚大하였을 龜趺적어도 그 龜趺의 一部라도 그 書院構內에 남아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의 西岳一帶에 平原과 丘陵을 莫論하고 新羅古墳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散在하고 있는데 新羅英主의 王子요 國家元勳의 한 사람인 金仁問墓가 일찌기 무너져 平地化가 될 것이며 또 그렇다고 하여 碑까지 殘在하는 그 墓地를 몽게 버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金庚信의 (金仁問은 金庚信의 甥姪인) 祠廟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도 또한 想像과 臆測이 그 度を 지나치게 벗어 난 억지인 것이니 要컨대 現在 金仁問墓는 그 殘碑의 發見으로 더욱 確證되는 것이다.

끝으로 某氏의 論旨을 要約해 보면 그의 中心이 松花山の 金庚信墓를 否認하고 그것을 現在 金仁問墓에 옮겨다 놓으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의 着眼點을 推考하여 보면 松花山の 金庚信墓는 이른바 두드러진 王의 陵寢이라는 先入見에서 金庚信이 興德王때에 興武大王으로 追封된 史實도 거의 度外視하거나 輕視해 가면서 주로 輿地勝覽에 金庚信의 墓를 가리켜 西岳里에 있다한 것과 金仁問墓 近處에 殘存한 龜趺를 據點으로 하여 여러가지 臆測과 穿鑿과 牽強附會를 試圖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山原이 지금 松花山이요 지금 忠孝里가 日帝初까지도 西岳里에 포함되었었으며 그 위에 金仁問의 墓碑까지 發見되어 그것이 金仁問墓 龜趺에서 離脫된 것임도 天下에 公認되고 있는 以上 某氏의 獨斷的인 論據는 成立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對한 辨正도 도리어 遍遍한 느낌조차 들기도 하나 이 異說로 因하여 新羅의 陵墓가운데에도

文獻에 昭昭하고 傳守가 歷歷한 七·八基가 連鎖的으로 或은 否定되고 或은 換易되고 或은 所在不明으로 되어 慶州一帶의 新羅陵墓가 一大 混亂에 빠지려하고 있다. 의심치 못할것에 부질없이 異論을 提起하고 自己見解에 背馳가 되면 몇몇한 正史의 記錄까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⑧ 式의 論法을 弄하였으니 이는 立異의 好奇心을 充足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로 말미암아 數 많은 史蹟의 尊嚴性이 짓밟히고 世人과 後人이 眩惑되는 結果가 나타나지나 아니할까 저으기 염려되는 바이다. 이러한 杞憂에서 筆者는 支離張皇함을 무릅쓰고 自己나름의 學的 所信에서 辨正의 뜻을 들어본 것이다.

註

① 金陽墓의 前方에 있는 金仁問墓를 金陽墓로 錯覺한 듯하니, 龜趺를 들어 말한 것으로 보아 그러함.

② 關野貞著 朝鮮美術史 石碑條에 (朝鮮史講史 所收)

『傳金陽墓라고 하는 것은 (金仁問墓의 誤認—筆者) 太宗武烈王陵의 南에 있어 그 前面에는 一龍趺가 있다. 龜趺는 武烈王陵의 龜趺와 同樣式으로 彼此의 年代에 大差없는 것 같다. 金陽은 文聖王 十八年에 卒하였으므로 此碑를 金陽과 關係가 있다고 함은 年代가 너무 늦는다. 나는 오히려 이를 武烈王·文武王時代의 名將 金庚信의 墓碑라고 생각함이 오히려 妥當하다고 믿는다』—譯—

라 하고 同書 新羅陵墓條에

『慶州의 西方山上에 傳金角干墓(慶州郡府內面)라고稱하는 것이 있다. 從來 많은 學者는 이를 金庚信墓에 擬定하였으나 나는 여러가지 理由로 文武王의 弟 金仁問의 墓로 하는 說에 贊成하고자 한다. 金仁問은 오래 唐에 가 있어 이 墓의 地相은 매우 唐 高宗 乾陵을 닮았음은 더욱 이 說을 뒷받침하는 것이다』—譯—

라 하였음

③ 淸·劉燕庭의 海東金石苑(卷二)『唐 新羅角干墓十二神畫像』의 跋文에 『右十二神畫像 在朝鮮慶尙道慶州府(西岳角干墓前云云)이라 하였음(本書는 淸道 光十一年·朝鮮 純祖三十一年 撰인)』

④ 이 밖에도 日人 考古學者 有光教一氏도 今西龍氏와 같이 在來로 守護하여은 金庾信墓에 對하여 絲毫도 의심을 품지 아니하였음 (靑丘學叢 二五號 所載 『十二支生肖의 石雕를 繞らした 新羅의 墳墓』 參照)

⑤ 金庾信의 母親은 葛文王立宗(法興王의 弟)의 아들 肅訖宗의 딸인 萬明夫人 이요 妻 智炤夫人은 太宗武烈王의 第三女이며 그의 季妹는 太宗武烈王의 后(文明王后)

⑥ 金庾信의 追封이 三國遺事 金庾信條에는 景明王때의 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錯誤임으로 本稿에서는 三國史記·本傳의 說을 좃음
⑦ 三國史記·善德王紀 十六年條에 『諡曰善德 葬于狼山』이라 하였으며 同 神文王紀 十二年條에 『諡曰神文 葬于狼山東』이라 하였으며 同 孝昭王紀 十一年條에 『諡曰孝昭 葬于望德寺東』이라 하였고 三國遺事·善德王知讖三事條에 『葬於狼山之陽』이라 하였으며 同書 王曆篇 孝昭王條에 『陵在望德寺東』이라 하였고 東國輿地勝覽 慶州陵墓條에 『善德王陵(在狼山 南嶺) 孝昭王陵(在府東 芬南里)』라 하였고 東京雜記 陵墓條에는 『善德女王陵 在狼山 南嶺 孝昭王陵 在府東 芬南里 神文王陵 在望德寺東』라 하였음

⑧ 前舉 朝鮮美術史 金角干墓條
仙桃山은 道教的인 神仙思想에서 나온 名稱으로 本來 西岳(述)과는 別問題의 것인 듯하다. 金富軾은 그의 三國史記 新羅紀 末尾 史論가운데서 『政和(宋徽宗의 年號인마 政和六年 즉 高麗睿宗十年에 金富軾이 渡宋하였음) 中 我朝遣尙書李資諒 入宋朝貢 臣富軾 以文翰之任 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 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 孕 爲人所疑 乃泛海 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臣又見 大宋國信使王襄(高麗 睿宗五年에 渡來) 祭東神聖母文 有旌賢肇 邦之句 乃知東神 則仙桃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 王於何時 云云』라 하였는 바 이 仙桃山女仙의 이야기도 道教的인 神仙思想에서 나온 것으로서 本來 西述(岳)聖母와는 別個問題의 것이었으나 이 金富軾의 說이 世間에 傳播됨을 따라 仙桃山女仙과 西述聖母가 서로 結合되고 西述이 仙桃山으로도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됨 (建國學術研究院 發行 『學術誌』 第五輯 所載 拙稿 『國史上에 나타난 建國說話의 檢討』參照)

⑨ 唐 高宗은 麟德二年에 (新羅 文武王 五年 西紀 六六五) 使臣을 보내어 金庾信을 奉常正卿 平壤郡開國公 食邑二千戶에 封하였음 (三國史記 金庾信

參照)
⑩ 前舉 今西龍氏의 論文 『新羅舊都慶州의 地勢及び其遺蹟遺物』에 『金庾信의 墓는 西岳里松花山에 있다. 云云』(譯) 또 『慶州に於ける 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는 就て 『金庾信의 墓』條에서 또 『金庾信의 墓 慶州의 西 西岳里의 丘陵에 있다. 云云』이라 하였음 (譯)

⑪ 三國史記·卷 十一 憲康王紀에 『王性聰敏 愛看書 目所一覽 皆誦於口 六年 九月九日 王與左右 登月上樓 四望京都 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 今之民間 覆以瓦不以茅 炊飯以炭不以薪 有是耶 敏恭對曰 臣亦嘗聞之如此 因奏曰 上即位以來 陰陽和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樂 此聖德之所致也』라 하였음
⑫ 지금에도 全國에 散在한 그 後孫들이 이 二次의 墓祭를 行함.
⑬ 金庾信碑의 舊拓本은 耳溪 洪良浩도 보았던 것이니 耳溪集(卷一 六) 『題金角干墓碑』에 『金角干諱庾信 新羅統合三韓之元勳也 墓在慶州西 十里余嘗爲府尹 操文以祭之(中略) 後二十餘年 余直騎省 郎官李君書九博 雅好古之士也 自言其家 有東方金石帖散帙只餘數卷 函令取來 閱新羅古蹟 有金角干碑數幅(中略) 遂請於李君 得其一幅 附粧於鑿藏碑之下 云云』이라 한 것으로 보면 原碑는 매우 巨大한 것으로 지 金仁問墓碑의 類가 아니었던 듯함.
⑭ 金庾信은 文武王 十三年에 (六七三) 卒하였음 金仁問은 孝昭王三年에 (六九四) 卒하였음.
⑮ 金仁問墓는 三國史記·本傳에 『窆于京西原』 즉 京都의 西쪽 原野에 장사하였나 한 것으로도 現位置의 金仁問墓는 疑心할 것이 되지 못할.
⑯ 善德女王陵·神文王陵·孝昭王陵·神武王陵·金庾信墓 즉 興武王陵·金仁問墓等等
⑰ 正史의 記事라도 妥當性이 缺如된 것은 否定도 할 수 있으나 某氏는 自說의 不當性을 깨닫지 못하면서 덮어놓고 『만일 史記의 金山原이 지금 松花山上의 陵墓자리를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史記의 잘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서슴치 않고 主張하였다. 위에서 도 言及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 金庾信傳은 撰者 金富軾의 主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金庾信의 玄孫長淸이 撰한 그의 行錄(十卷)을 간주려 엮은 것임으로 新羅時代에 있어 그의 子孫이 그 祖上墓의 所在를 잘못 적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